

2010 년도

(재) 후쿠오카아시아도시연구소 (URC) 연구보고서

# 하카타항에 기항하는 크루즈선의 중국인승강객 관광동향 조사

요 지

2011 년 3 월



**URC**  
Fukuoka Asian  
Urban Research Center

## 요 지

### I. 들어가며

큐슈의 인바운드관광은 한국인여행자의 주요 도항루트가 해로로 되어있는 등 선박이용의 형태가 큰 특징으로 되고있다. 특히, 근년에 있어서는 큐슈의 각항으로 중국발 외국선적쿠르즈선의 기항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하카타항 (후쿠오카시)에 있어서는 작년, 2010 년의 기항횟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1 회에 달하는 등, 크루즈선 승강객의 인수태세를 합한 중국인 여행자를 대상으로한 인바운드 관광부흥책이 과제로 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현상을 근거로 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2010 년 10 월에 실시한 하카타항기항의 크루즈선 승강객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조사결과를 기초로하여 차후 우리나라 최대의 인바운드대상시장에 상정되는 중국인 여행자의 관광동향의 실태를 밝히는 것과 더불어 후쿠오카, 큐슈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중국 인바운드 부흥책의 올바른 자세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 II. 조사의 개요

조사는 2010 년 10 월 하카타항에 기항한 중국발의 두척의 외국선적 크루즈선 ‘Legend of the Seas’ (천진발착 7박 8일·약 2,000 인 정원·10 월 4 일기항), ‘Costa Classica’ (상해발착 4박 5일·약 1,700 인 정원·동 13 일기항)의 중국인 승강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하카타항에 기항 후, 하선하여 후쿠오카의 1 박관광에 참가하고 다자이후 텐만궁 등을 관광한 이후, 후쿠오카시의 변화가, 텐진에서 2-3 시간 쇼핑을 한 승강객에게 조사표를 배부, 임의로 기입해 받은 후, 승선전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 808 장의 조사표를 회수하였다.

### III. 조사대상자의 속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50.5%, 여성 49.5%, ‘연령대’는 40 대(31.7%)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30 대(23.6%), 50 대(18.6%), 20 대(11.5%), 60 대(7.8%), 70 대(4.1%), 10 대(2.8%)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주거지’는 상해근처의 장쑤(江蘇)성 (53.1%) 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북경시(28.3%), 상해시(4.9%), 천진시(2.0%), 그 외 중국 지역이 10.6%였다. ‘직업’은 회사원이 37.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관리직(17.2%), 전문·기술직(8.7%), 경영자(6.9%), 전업주부(5.1%), 공무원(4.6%) 등의 순이었다.

### IV. 후쿠오카에서의 관광소비에 관한 조사결과

승객의 후쿠오카에서의 일인당 평균 관광소비 관광액은 4만3천엔남짓으로 가장 고액의 회답은 100 만엔이었다. 크루즈선별의 승객의 일인당 평균관광소비금액에서는 상해발의 ‘Costa Classica’의 승객이 5만2천엔정도, 천진발착의 ‘Legend of the Seas’ 승객이 3만4천엔정도로 상해발착 승객이 1만6천엔남짓 소비금액이 높았다.

또한, 구입한 품목별의 비율은 ‘식료품·음료품’이 56.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화장품’ (35.8%), ‘전자제품’ (31.9%), ‘옷·가방·구두’ (20.8%), ‘시계’ (20.8%) 등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의 평균 소비금액에서는 ‘전자제품’ ‘시계’ ‘옷·가방·구두’ ‘약품’ ‘화장품’ 등이 2-3 만엔정도의 고액으로 나타났다.

## V. 후쿠오카의 관광, 도시에 관한 평가

승강객이 참가한 후쿠오카의 관광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상업시설의 정원의接客대응’ ‘후쿠오카의 자원봉사 가이드’에 있어서는 매우만족의 응답율이 높았고, ‘쇼핑시간’ ‘거리의 외국어표기(안내)’에 있어서는 매우만족의 응답율이 낮았다.

조사결과로부터 크루즈선의 중국인 승강객에 대한 후쿠오카의 인수태세의 주요한 과제로서 쇼핑시간이 짧다는 것, 거리의 중국어표기나 안내, 상업시설에서의 중국어 대응이 부족한 것이 명확해 졌다. 이들의 과제해결을 위해 후쿠오카시에서는 나라의 ‘종합특구제도’의 제안모집을 응하여, 해외임시선을 포함한 하카타항의 CIQ 체제를 강화하여 입국심사의 신속화를 도모하는 것과 언어대응을 포함한 쇼핑, 관광안내의 서포트의 강화를 위해 후쿠오카의 유학생 등을 활용한 새로운 가이드제도를 창설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차후 대응책에 임하기 위한 나라의 지원이나 제도완화가 기대된다.

승강객의 후쿠오카에 대한 인상에 관한 조사결과에 있어서는 도시, 자연의 환경이나 관광에 관한 평가는 높았으나, 명소고적 등의 관광자원에 관한 평가는 낮았다.

## VI. 방일 중국인여행자의 관광동향과 인바운드관광부흥책의 과제

승강객이 차후 일본으로 여행할 시, 방문하고 싶은 지역으로는 ‘동경’ ‘북해도’가 약 7 할, 이어서 ‘오사카’ ‘나고야’ ‘교토’ 등이 거론되었으나, ‘후쿠오카’는 6.9%, ‘큐슈’는 3.9%에 머물렀으며 인지도도 낮았다. 그리고 차후의 방일여행에서 체험하고 싶은 것으로는 ‘쇼핑’보다 ‘자연관광이나 풍경’ ‘온천’ ‘일본요리’ 등의 응답율이 높았다.

이러한 조사결과에서 현재, 지리적 근접성으로부터 후쿠오카, 큐슈로의 중국발 크루즈선의 기항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항지에서의 1박상륙관광만으로는 체재 시간도 짧고, 관광교류활동이 한정되어있다. 게다가 이후의 방일여행 목적지로서의 선택율도 적다는 것로부터 지리적 접근성을 우위성으로서 충분히 살리고 있다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현상이 분명해 졌다. 차후 기항하는 크루즈선의 중국인 승강객에 대해 방일 중국인에 대한 개인여행 VISA의 발급완화 추세도 시야에 넣어 리피터(repeater)의 수요를 유발하는 대처와 함께 후쿠오카, 큐슈의 인지도, 이미지를 포함한 매력을 향상하는 대처가 기대된다.

승강객의 차후 여행하고 싶은 아시아의 나라나 지역으로 일본 3 번째로 거론되었지만, 홍콩, 타이, 러시아와 같은 정도로 싱가포르나 대만의 응답률 보다도 훨씬 낮았다.

이웃 아시아 각국에 있어서도 중국 인바운드를 둘러싼 유치경쟁이 활발화하고 있는 것에서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아시아의 각국과 차별화를 도모하여 효과적인 중국인 여행자의 유치나 인수태세의 준비를 진행해 나갈 것 인가가 차후 과제라고 생각한다.

## VII. 마치며

근년의 방일 중국인여행자의 관광동향에 있어서는 왕성한 관광소비에 관한 부분에 주목이 집중되어 지역경제로의 파급효과 측면만이 크게 다루어지고있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나 관광을 통한 국민끼리의 왕래에 의한 풀뿌리(일반시민)의 교류가 국가간의 외교를 시작으로하는 관계를 보완하는 문화적 안전보장으로서의 국제관광 교류의 역할도 있어서는 안될 점이다.

현재, 일중관계에 있어서는 영토나 역사인식을 둘러싼 과제가 남아있으며 양국의 여론조사결과에 있어서도 양국관계의 악화가 염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국 인바운드관광부흥의 대처가 중국인 여행자에게 일본의 다양한 매력을 전하고 양국민의 교류가 확대하는 것에 의해 어떻게 일중관계의 개선과 심화를 도모해 나갈 것인가, 각 지역의 대처에 기대하고 싶다.



**U R C**

Fukuoka Asian  
Urban Research Center

---

2010 년도 (재) 후쿠오카 아시아 도시연구소 (URC) 연구보고서  
하카타항기항 크루즈선 중국인 승강객관광 동향조사

<요 지>

2011 년 3 월

재단법인 후쿠오카 아시아 도시연구소  
조사실시·분석·집필담당자 研究主査 아라이 나오키

〒810-0001 福岡市中央区天神1丁目10-1

T E L : 092-733-5686

E-mail : [info@urc.or.jp](mailto:info@urc.or.jp)

URL <http://www.urc.or.jp>

---